

#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서산시 시범사업 사례



박미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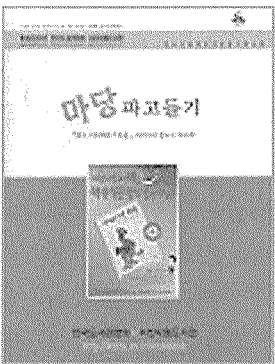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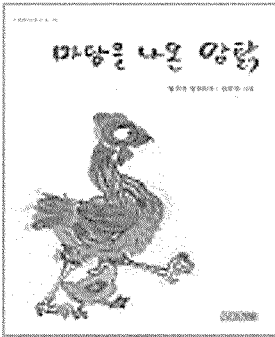
서산시는 2003년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행정자치부의 2003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 지원 대상사업의 일환으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지식기반사회를 앞두고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과 도서관을 통한 지역단위 지식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 도시/지역 구성원 모두가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읽기를 통해 지식과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목적으로,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독서운동인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One City One Book)'이 우리나라에도 접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기획되고 추진된 사업이다.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2월 초에 일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여기서는 우선 추진되었던 각종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성과와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사업에서 주요하게 추진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과 캐나다의 현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가 있었다. 이러한 사전 조사는 이 운동의 목적과 목표, 구체적인 실천 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전국도서관대회에서의 워크숍과 사업 종료 후 최종보고서 발간, 공식 홈페이지(<http://www.korla.or.kr/onebook/index.asp>) 운영 등의 사업이 서산시에서의 시범사업과 함께 실시되었다.



서산시에서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서산시민 모두가 책 한 권을 함께 읽는다

\* 서산시립도서관 사서, mhee4617@hanmail.net



면!”이란 캐치프레이즈로 황선미 씨가 쓰고 김환영 씨가 그림을 그린 『마당을 나온 암탉』(사계절출판사, 2000)을 함께 읽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가장 관건으로 생각한 대상도서 선정작업은 9월과 10월에 걸쳐 서산시립도서관에서 9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선정했다. 10월 27일 서산시장이 대상도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책 읽기 운동이 시작되어 10월부터 12월 초까지 각종 독서 프로그램이 서산시 전역에서 진행되었다.

주요한 프로그램으로는 작가강연회(11.14) 및 작가초청 시민토론회(11.21), 11월 4일부터 30일까지 32점의 그림을 시립도서관 외 시내 학교 7개소 등 총 8개소에서 순회 전시한 원화전시회, 연극 ‘마당을 나온 암탉’ 비디오 상영(11월 중 서산 시내 초·중·고등학교 14회, 시립도서관 4회 등 총 18회 상영), 관련되는 영화인 ‘치킨 런’ 상영(11.8~11.29 매주 토요일 14:00, 총 4회 서산시립도서관에서 상영) 등이 있었다. 그리고 또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모임도 조직되었다.

우선 그룹 단위 토론회가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서산시립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조직되었다. 토론에는 서산시립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화읽는어른모임, 주부독서회, 흙빛문학회, 외국어교실수강생모임과 시내 각급 학교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시내 북카페에서 매일 1회 자발적인 토론모임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자율적 토론모임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웠다. 토론을 돕기 위한 워크북 “마당” 파고들기도 제작되어 시민들에게 배포되었다. 이 토론자료집은 토론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사업 끝무렵에는 백일장대회(11.29)를 가졌다. 이번 독서운동은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홍보도 매우 중요하게 하고 언론보도와 함께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를 위한 한 방법으로 대상도서를 선물하는 ‘책 선물 릴레이’도 시도하고, 도서관에 책을 많이 비치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시민들에 대한 설명회(10.27), 서산발전협의회(10.27) 및 시의원들에 대한 설명회(11.13) 등을 통해 전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독서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산시에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활발한 대화 분위기를 만들으로써 서산시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식기반 사회를 만드는 분위기

를 조성하여 지역에서의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의 가능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사업을 추진한 서산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 추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문화 주도적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또한 관이 주도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시민들의 독서활동을 도왔던 서산시립도서관이 전면에 나섬으로써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이 운동이 바람직한 성공을 가져온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서산시청은 물론 서산시에 소재한 여러 독서모임 또는 민간단체, 학교, 서점이나 업체 등의 참여가 활발한 것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물론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점보다는 향후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서산시는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이 운동을 계속 추진한다. 향후 더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간부문과 시/공공기관이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립도서관이 주관하는 방식의 조직 구성과 전담 인력(코디네이터 등) 확보, 지역 내 도서관과 학교 등과의 긴밀한 협력, 지역 내 단체장 등 지도자 그룹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실천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독서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003년 서산시에서의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매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이 독서운동이 특정한 조직이나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004년 '서산시민들이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는다면!' 은 또 어떤 즐거움을 가져올 것인지 사뭇 기대가 된다. 